

# 취임사



**임춘택** (상대 68)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49대 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선후배 동문님,

저는 금년도 남가주 동창회를 맡게된 상대 68학번 임춘택입니다.

지난 해 남가주 동창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만 해도, 솔직히 동창회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김경무 회장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본인 사업을 풀 타임으로 하고 계시면서, 생업에 지장이 갈 정도로 동창회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셨고, 밤 늦게까지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회장님의 헌신에 힘입어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3년간 Covid Pandemic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젠 본연의 궤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2017년 당시 남가주 총동창회 이사회(회장 김병연박사)에서 조사한 동문회 현황에 따르면, 남가주 동문 총수는 2,552, 이메일 확보 동문수 1,417, 주소 확인 동문수 2,386 등등 재미있는 통계수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계수치의 진위를 떠나, 우리들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동문들이 이곳 남가주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대학원을 포함 15개 단과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10개 이상의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3명의 상임이사님들(과거 동창회장 역임하신분)이 기동처럼 버티어 주시고, 또한 많은 선배 후배님들이 서울대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300여명)과 참석치는 못했으나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계신 모든 서울대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24년도 남가주 동창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2월 3일

임춘택 드림